

제8절 삼울4리(三栗四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북쪽에는 빛내(陽川)를 경계하여 삼울1리와 삼울2리가 있고, 서남쪽은 금음1리와 인접하여 있다. 마을회관은 2004년에 건립되었다.

2. 마을의 역사

1946년에 삼울1리에서 분구(分區)되어 삼울4리로 되었다. 1980년 12월 1일[대통령령 제 10050호]에 평해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평해읍 삼울4리로 되었으며, 1986년 3월 27일[대통령령 제11874호]에 후포출장소가 면(面)으로 승격되어 후포면 삼울4리로 되었다.

3. 가구 분포

총 414세대가 거주하며 김녕 김씨(金寧金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김해 김씨(金海金氏), 연일 정씨(延日鄭氏)를 비롯해 다양한 성씨가 분포하고 있다.

4. 전설

1) 정실(正實)

이 마을의 뒷골을 정실골이라 하는데 지형이 떡시루 모양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 벌떡현

7번국도변에 있는 회식당 센터 부근을 말하는데, 높은 사구(砂丘)로 형성된 신흥촌(新興村)이다. 과거에는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많아 성황을 이루었으며, 노변(路邊)에는 지방 관원들의 송덕비(頌德碑)가 다수 세워져 있었다.